노빈손의 작가
이우일이 그린

콜린마스크와 청렴수술원정대,

푸름마을을 지켜라!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감옥에서 10년을 살더라도 10억원을 받게 된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고 대답한 중고생 비율이 무려 17.7%에 달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부의 축적을 위해 부정행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부의 축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부정부패'가 아니라 '청렴' 입니다.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핵심요소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도덕적 수준이 높아져야합니다. 청렴이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청렴' 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청렴은 보다 적극적 · 능동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떳떳하게 행동하는 것, 자신의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사람을 대할 때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대하는 것, 정정당당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 이 모두가 청렴입니다.



이 책을 통해 청렴과 친해지고 나아가 여러분 모두가 '클린마스크'가 되어 깨끗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수호자가 되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등장인물 소개



클린마스크
정의(청렴, 반부패)를 수호하는 청렴단의 영웅으로 이니셜 C가 새겨진 복장과 가면을 쓰고 부정부패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고 부정부패 악당들을 벌벌 떨게 함.



부패왕
세계 곳곳에 부정부패로 오염시키는 부정부패단의 보스로 정체는 비밀에 감추어져 있음.

새도우
부정부패단의 악랄한 킬러로 클린마스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힘.

바름이 푸름마을의 어린이로 조금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실수를 연발하기도 하지만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소년.



슬기 바름이의 단짝친구로 슬기롭고 침착하며 바름이와 청렴 구술을 찾기 위한 원정대에 합류하여 바름이를 도움






하늘처럼 넓고 깨끗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푸름마을.
푸름마을


사람들은 모두,
에고,
무거워라
…
아!


친절하고,
제가
들어드릴께요.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고맙네!
고마워!


하는 일은 달라도


모두 성실하고 바르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한편 이런 푸름마을을 부패와
불신으로 물들이기 위해
틈만나면 사람들을 부추기고
유혹하는 부정부패단.


부정부패단의 음모에 맞서 푸름마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영웅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클린마스크!


에고… 평소에 공부 좀 해둘걸.
내 답안지 보여줄까?
슥-
어?
딱!
아얏!
컨닝금지!


자 최신 프로그램이 많아요! 쌉니다! 싸요!
새로나온 프로그램
가격 파괴! 99%
토토샵 프로그램 있나요?
그거라면 어제 새 프로그램이 나와서 몰래 복제해둔게 있습죠!
그래도… 그건…
공CD에 복제한 거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럼 그거라도…
그럼 나도 한개만 …
네 네! 여기 있…
헉!
으악! 클린마스크닷!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 안됩니다.
끄덕 끄덕


푸름마을 사무소
이번 마을 회관 공사를 …
푸름 마을 사무
저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힘 쫌…
슥-
그래? 그럼 내가 힘 좀 써주지!
엥?
헉! 크..클린마스크?!
뇌물금지!


와! 클린마스크다!
푸름마을에 사는
바름이와 슬기에게
클린마스크는
절친한 친구이자
동경의 대상.


클린마스크 최고예요.부정부패의
유혹으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거든요!


저도 클린마스크처럼 바르고
용감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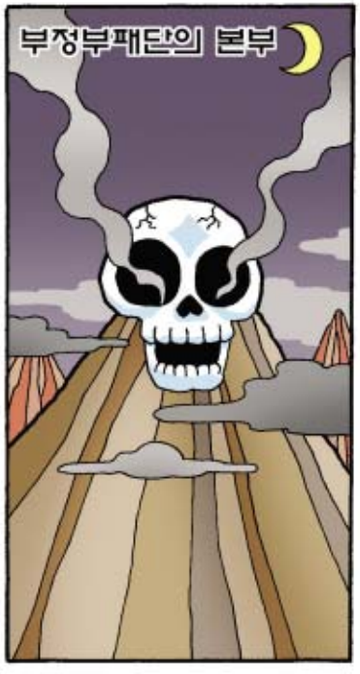

에잇!
저 녀석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인사청탁!
불법
다운로드!
불량식품
유통!
식품점
10000
XX
으!


흥! 내가
있는 이상
부패는
어림없다!


여러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우리 사회를
검게 물들이는
행동이랍니다.


두...두고보자.
클린마스크...
하하하!


부정부패단의 본부


우적, 우적-
냠냠-
큰일났습니다. 대장님!


서부지구가 또 청렴단에게 당했다고 합니다!
뭐야? 또 그 크... 뭐시기 마스크라는 놈에게 당한거야?
클린마스크 입니다요...


그까짓 마스크 둘러맨 놈 하나 처리 못하고 뭐하는거야!
저...그게...


그를 보내도록 해!
헉! 설마... 섀도우를요?


서부지구 변방의 푸름마을
와아!
클린 마스크!


오늘도 부정부패단을 무찌른 이야기 해주세요! 네?


슥


!


누구냐?
척-
엇!
아!


클린마스크!
아무도 없는데요?
?
스르르륵-
음...


으...으...
크..클린마스크
그림자가 혼자
움직여요!
뭣? 그림자?
이히히히히
스르르르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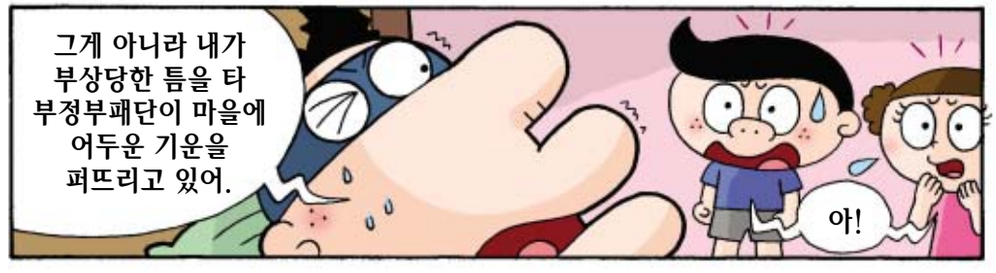

으앗!
탁!
얘들아!
위험해!
쉭
쉭-


이히히히!
치명상을 피했군!
하지만 그 표창엔
독이 묻어 있다!
죽는 건 시간
문제지!
히히히힛!
잘가라!
클린마스크!
스르르르


어쩌면 좋아!
클린마스크가 우릴
구하려다가...
클린마스크
죽으면 안돼요!
어서 의사
선생님을!


일단 고비는
넘겼으니
안심해라.
너희들이 날
빨리 불러서
그나마 다행이었어.


으...음...
마을에...
어두운 기운이
느껴져...
앗!
클린마스크
괜찮으세요?
헛소리를
하시나봐!
지금은 대낮
이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부상당한 틈을 타
부정부패단이 마을에
어두운 기운을
퍼뜨리고 있어.
아!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운
기운에 물들고 있어.
어서 내가 일어나야...
으윽!
무리네!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


저희가 돕겠어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란다.
얘들아…
진정해…


어차피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저희가 잘 할 수 있어요.
끄덕끄덕


고맙구나.
하지만 지금은 어둠의
세력이 너무 크게
퍼져 있어 너희들의
힘만으론
어려울거야.
흠…


음…
곰곰…
?


얘들아,
이걸 좀
볼래?
슥


이 상자는 '청렴단'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란다.
인류에게 큰
위험이 닥쳤을 때
열어보도록
전해내려오고 있어.


지금이 이걸 열어야
할 때인 것 같다.
딸각


앗! 목걸이와 반지…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문서가 들어있어요!
반지에
커다란 구슬이
박혀있어!


그런데 목걸이엔
아무 것도 없네?
그러게. 뭔가
구슬 같은 게
박혀있던 자리만
네 군데 있어.


게다가 이렇게
작은 걸 목에
걸 순 없잖아?
네 머리가 큰 건
아니고?
치! 남말
하시네!
이 반지도
너무 작아서
어림 없겠어!


클린마스크, 그 문서에 사용설명이라도 적혀있나요?
흠


이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부정부패단의 강력한 어두운 기운으로부터 마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전설 속에 내려오는 용기, 책임, 정의, 화합의 구슬을 찾아야 한대…
和
任
勇
正


그 구슬들은 청렴단의 성물로서 부정부패단의 어두운 기운으로부터 세상을 수호하는 영험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부정부패단의 꼬임에 넘어간 청렴단원이 그들에게 구슬을 빼앗기게 되었다는구나.


구슬을 뺏긴 후 청렴단은 그 구슬을 되찾기 위해 부정부패단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었어.


아아…
그래서 구슬은 어떻게 되었나요?


전세가 불리하게 된 부정부패단은 그들의 요새인 해골계곡으로 도망을 가며 계곡 곳곳에 구슬을 숨기고,


거기에 마법으로 결계를 쳤다고 하는군.
아… 결계까지…


네 개의 구슬을 모아 이 목걸이의 빈 곳에 끼우게 되면…
슥


구슬의 영험한 힘이 되살아나 부정부패단으로부터 다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구나.
반지는 뭐지...?


이 목걸이와 반지는 바르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착용하려고 했을 때에만 목걸이와 반지가 그 사람에게 맞춰 커진다는데...


너희들이 해보렴!
예? 저희가요?


끄덕-
그..그래도 될까요?


아...


여..역시 안 들어가는데요. 머리가 너무 커요...
낑-
낑-


나도 안 맞아...
앗!
스르륵
스륵


쏙-


들어갔다!
쏙-


짓!
앗! 변신했어!
이럴수가!
이런 놀라운 일이!


아!


애들아, 그 목걸이와 반지의 신비한 힘이 해골계곡에 흩어져 있는 네 개의 구슬로 너희를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들에게 너무 힘든 일을 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아니예요, 클린마스크.
우리에겐 전설의 목걸이와 반지가 있잖아요!


그래! 이제 너희들의 손에 이 마을의 운명이 달려 있단다!
네!


근데 해골계곡을 어떻게 찾아가지?
걱정마. 마을 사람들 중에 분명 아는 분이 있을 거야.
맞아! 마을 사람들이 분명 도와줄 거야!


근데 마을 분위기가 평소랑 다른 것 같지 않아?
?!






으르릉


어? 스마일 아저씨다! 안녕하세요. 스마일 아저씨!
꾸벅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
!













바름이와 슬기는 스마일 아저씨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모두 뭔가를 요구했습니다.














으앗! 몸이 빨려 들어가!
우왓!
으윽, 여기가 어디지?
무슨 공사 현장 같아.
공사중인 다리 위인데?
공소장님! 공소장님!
왜 그러나 나감독.
이거 철근이 부실한데요?
아~참니! 나감독! 좀 봐줘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자자! 이거 받아요.


어허! 이러면 안되는데!
덥썩-
이 친구야! 이 일 하루 이틀 하나?
삭
감독
잠깐!
아저씨들! 부실공사를 하시면 위험하다고요!
탓!
아…
아이들이 뭘 안다고 어른들 일하는데 나서?
저리로 썩 못가?
쩌억!
와지직! 뿌직!
으아! 다리가 무너진다
꽝~!
이히히힛! 성공!
둥실
으악!
앗!
빨리 반지에 도움을 청해!


반지여, 도와주세요!
팟!
아!
어…
어…
징~
두둥실
구했다!


으흐흐흑!
고마워!
부실공사를 눈 감아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셨죠?
내가 잘못했어!
아, 이런!
분하다!
두고보자!


팟!
앗!
목걸이에 구슬이
하나 생겼어!
야호! 한 개
성공이다!


그 후 바름이와 슬기는 부정부패단의
유혹에 빠져 탈세를 하려던 사업가를


설득하고 책임의 구슬을 얻게 되었고
우리 마을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모두가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해요~
끄덕
끄덕


부정부패단의 유혹으로
무임승차하려는
학생을 만류하고
정의의 구슬을 얻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야! 벌써
세 개나 모았어!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는데?
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상해. 항상
방향을 표시해
주던 반지가…


이번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네…
우하하핫!
뭐?
그럴리가!


클린마스크도 급했나보군.
이런 애송이들을…
앗!
섀도우!
으아!


슬기야! 어서
도망쳐!
히히히히


푸핫! 내게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서 구슬을 내놓으시지
우하하핫!


안되겠다. 슬기야!
우리 둘 다 잡힐지도 몰라
구슬을 지켜야 해!
여기서 다른
길로 가자!
슈악-


흥! 잔꾀를 부리시겠다?
목걸이를 한
여자애부터
잡아야겠군.
사삭-


꺅!


우히히히힛
안돼!
놔 줘!
아…
아…


남자애는 놓쳤지만
여자애라도 잡았으니 다행이군.
마침 구슬도 모두
여기 있고 말이야.
성으로
돌아가자,
성이
라면?


어디긴 어디야
해골계곡이지!
우하하하!
슬기야.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쿠궁-!


이, 이럴수가!
꺅!
침 떨어져요!


그 옛날 내가
도망 치면서 숨겨 둔
그 구슬이 틀림없군!


맞습니다.
그 구슬이 틀림없지요.
이히히히!
ㅋㅋㅋㅋ
화들짝!
깜짝이야!
임마, 인기척 좀
내고 다녀!


참으로 대단하군!
그 동안 아무도 통과하지 못했던
나의 결계를 모두 통과하다니...


하지만 구슬이 세 개 뿐이야!
네 번째, 구슬들의 힘을 합해줄
마지막 구슬이 없어! 우하하하!


한편, 마을에선
우르르릉!
번쩍!
음...


클린마스크,
아직 일어나면
안되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이제 많이 나았어요.
그보다...


해골계곡 쪽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아무래도
바름이와 슬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쿠루릉~
뭐, 뭣?
그럴수가!
아아...


도울 수 있는건
우리 마을 사람들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어떻게든
설득해서...


알겠네!
비상소집을 하겠네.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진정 힘을 모아야지! 암!


웅성-
웅성-
이런...
웅성-
웅성-


뭐야!
그러니까 공짜로 도움을
청한다는거야?
맨 입으로
할 수 없지!
암!


역시 힘든걸까?
이미 어둠의 기운에
마을 사람들이
물들었어...
큰일
이로군!
쭉-


잠깐!
앗! 당신은?
전에 도와드렸던...
?
슥-


저는 김계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웅성-
웅성-


제가 부정부패단의 꼬임에 빠졌을 때
만약 클린마스크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 감옥에
있었을 겁니다.


여기 클린마스크의
도움을 받은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텐데요?
아!
맞아요!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마을은
존재할 수
없었어요!
경찰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가
그를 도와야 할 때입니다.
그래요. 그건
곧 우리 자신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경찰


그, 그러고보니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됐었나봐.
아아,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거지?


옳소!
저도요!
나도 그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를
도웁시다!


아아...
이제 됐네!
클린마스크!


여기는 다시 부정부패단의 소굴
이 녀석을 어떻게 요리 할까요?


부스럭-


누구냐?
샥-


사삭-!
아하! 이게 누구야? 아까 그 꼬맹이 잖아? 제 발로 찾아 오다니!
!


이런 악당들 같으니라구! 슬기를 풀어주지 못해!
아, 바름아!
슉-


흥, 너희들이 마지막 화합의 구슬을 찾게 놔둘 순 없지! 세상은 우리 부정부패단이 지배할꺼야!


나쁜 놈,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게 된게 모두 너희들 때문이야!


이런, 이런! 나는 절대 강요한 적 없어! 나는 단지 아주 조금 부추겼을 뿐이라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열 번이 되는 법! 부패는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과 같아!
꿈틀~
꿈틀~


이제 너에게도 그런 좋은 것을 알려주고 싶구나!
흥! 아직도 세상에는 바르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아하? 그래?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까?
저 계집애를 부패의 유황불에 던져 넣어랏!
뭐?!


분부대로 합지요!
으히히히...
앗!
슥-
다, 당신은?


스마일 아저씨!
이럴 수가!


윙
철컥
부글 부글
부글 부글


꼬마야,
잘 가라!
아!


슬기야!!
안돼~~
클린마스크,
도와주세요!


와! 와!
와! 와!와!
응?


큰일났습니다!
클린마스크와 마을
사람들이 쳐들어
왔어요!
뭐야?!


흥! 가소로운 것들!


그래봤자 네 개의
구슬이 합쳐지지
않는 이상 나
부패왕을 물리칠
수는 없다!
음화화!


앗!
클린마스크!
와~!
와


해치워라 새도우!
슈ㅡ!
네!
휙!
하지만 클린마스크는 부상이 아직 완치되지 않은 몸이라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부패왕의 마력으로 계속 부활하는 악당들과 싸우느라 점점 지쳐갔죠.
그때,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쳤으니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모두 힘내세요!
모두 힘을 냅시다!
앗!
팡ㅡ


아니 저것은... 화합의 구슬!
엇! 내 반지의 구슬이...!
?!
둥실
슈ㅡ
쪽ㅡ!
안돼!
이럴 순 없어!
윙윙 윙윙윙
윙윙 윙윙윙
팡ㅡ


우와!
으악!


이, 이럴수가 어떻게 화합의 구슬이 청렴단에게…


너의 음모는 이것으로 끝이다. 부패왕!
너의 꼬임에 빠져 구슬을 건네주었던 구슬지기를 기억하느냐?
그 놈이라면…
너를 도왔던 구슬지기는 부패와 불신으로 물들게 될 세상에 두려움을 느껴…


화합의 구슬을 가지고 청렴단에 다시 오게 되었지.
그리고 그 때의 잘못을 씻기 위해 초대 클린마스크가 되어 언젠가 부패왕을 무찌르기 위해 화합의 구슬을 지켜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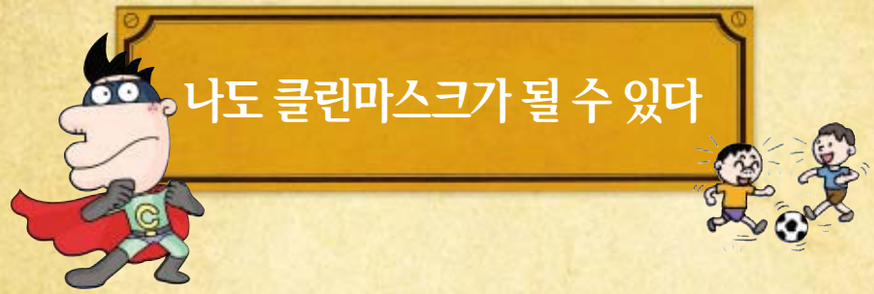

제길! 지금은 이렇게 실패로 끝났지만 사람들 마음에 빈틈이 보이면 반드시 돌아올테다!
샤기
무거워!
호호호호
바보!
헉! 도망 가는 것도 정말 빠르다!


난 너희들이 해낼 줄 알았어!


바름이와 슬기의 용기가 없었다면 세상은 계속 부정부패로 물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부패왕이 완전히 척결되기 전까지는 부정부패단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和
우리는 곧 구슬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푸름마을을 깨끗하고 행복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
正
勇
우리 힘만으로? 어떻게...?
부정부패는 한두 사람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에는 무척 어렵지만,
任
여러분들처럼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노력하면 쉽게 이겨낼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고 청렴의 수호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도록~
지금 이 마음을 꼭 지키도록 하겠어요!
저희는 세상이 위험에 처할 때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正
勇
任
和
우잉~
팟
아! 구슬도 모두 사라졌어!
아!
마을 사람들은 평화를 다시 찾은 기쁨에 소리쳤습니다.
와
와
바름이 만세!
슬기 만세!
클린마스크 만세!
깨끗한 푸름마을 만세!



나도 클린마스크가 될 수 있다

청렴단에는 정의, 용기, 책임, 화합의 구슬 말고도 다른 청렴의 구슬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구슬들은.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요. 어떤 구슬들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정직, 절제, 공정, _____ 의 구슬이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구슬들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클린마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청렴이란 _____

_____ 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청렴실천 하나가 모이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집니다.





도전! 나도 클린마스크

내가 지킬 수 있는 일을 약속하고 청렴의 구슬을 모아봅시다.

네 개 이상 모은다면 나도 이제 클린마스크



정직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 나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대하겠습니다.

준법 나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고 규칙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절제 나는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책임 나는 내가 맡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 나는 뺑소니 차량을 보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지갑을 주우면 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용기 나는 내가 올바르다고 믿는 일을 용기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배려 나는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심 나는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화합 나는 내 가족과 같이 나의 이웃과 우리나라를 사랑하겠습니다.

클린마스크와 청렴구슬원정대,
푸름마을을 지켜라!

펴 낸 곳 국민권익위원회
펴 낸 이 양 건
그 린 이 이우일
감 수 유병렬
담 당 청렴교육과
펴 낸 날 2008년 12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주 소 (우120-70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B/D 신관 (미근동257)
전 화 02-360-6559
팩 스 02-360-6865

청렴교육센터 edu.acrc.go.kr

ⓒ 권익위원회, 2008